

“北-美 이미 양해각서 교환”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가 8일 오후 4시25분(현지시간) 베이징(北京) 다오위타이(釣魚臺)에서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개국 대표단이 참가한 가운데 개막했다.

이날 회의는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부부장의 개막사에 이어 각국 수석대표가 자국 입장을 담은 인사말을 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우 부부장은 개막사에서 “각측이 6자회담 추진과정에서 기술인 건설적 역할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의 새로운 시작점을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우 부부장은 또 “앞서 2단계 회의에서 우리는 9-19 공동성명 이행의 초기조치에 대해 의미있는 토의를 했다”면서 “이후 각측은 여러가지 형식으로 긴밀한 의사소통을 유지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북한과 미국은 특히 효과적인 접촉을 가졌다”면서 “이번 노력들이 이번 회의 진행의 성숙한 기초를 다졌다”고 말했다.

6개국 대표단은 개막식이 끝난 뒤 곧바로 전체회의를 갖고 이번 회담의 운영 방식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뒤 본격적인 양자·다자 협상에 들어갔다.

앞서 6개국 수석대표들은 오후 3시15분부터 1차 회동을 가졌으며 미국의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회동을 마친 뒤 “훌륭한 미팅이었다”고 찬평했다.

이와 관련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8일 중국과 미국 고위 외교관들간의 접촉을 토대로 “이번 6자회담이 수일 내에 끝날 가능성이 크며 그 결과는 낙관적”이라는 분석

日 언론보도… 中 “6자회담 수일 내 끝날 것” 美 전문가 “중유 제공비용 한국 전담 가능성”



북핵 6자회담 제5차 3단계 회의 개막일인 8일 오후 베이징 다오위타이(釣魚臺)에서 열린 수석대표회의에서 각국 대표단이 우다웨이 중국 수석대표의 기조연설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을 내놓아 주목된다.

중국측은 지난해 12월 제5차 6자회담 2단계 회의와 지난해 베를린 북·미 회동, 이어 진행된 참가국들간 양자 협의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고 판단, 개막 당일 작업계획 초안 내용을 회담시켜 협상을 본격화시키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6자회담에 정통한 고위 외교 소식통은 “중국측이 오늘 중 작업계획 또는 공동성명 형태의 초안을 회담시킬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를 토대로 오늘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아사히(朝日)신문도 8일 지난달 베를린 미국·북한 접촉 때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수주 내에 북한이 영변 원자로의 정지 등을 이행하고 그 대가로 대북 에너지 및 인도적 지원을 동시 개시한다’는 내용을 담은 각서에 서명 교환했다고 전했다.

미·북 양국이 6자회담의 틀 속에서 문서를 교환하기는 처음으로 이번 6자회담에서는 이러한 합의를 바탕으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각서에는 북한이 영변의 흑연갑속로(5MW)를 정지하고, 2002년 12월에 추방됐던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관의 현장 복귀에 응하며, 대신 미국은 에너지·인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한편 미국 외교협회 캐리 세이모어 부회장은 8일 북한 핵동결에 따른 조치로 거론되고 있는 대북 중유 지원과 관련, “이번에는 남한이 중유 지원의 일부 혹은 전부를 책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북한의 핵동결 대가로 중유 공급을 피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클린턴 행정부 시절 미 의회에서 중유 공급 비용을 미국이 부담한다는 사실에 대해 강력한 반발이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6자회담 전망에 대해 그는 “미국은 북한이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할 수 없도록 기술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북한은 일시적인 가동 중단만을 얘기하고 있다”며 “이러한 입장 차를 좁히는 게 될 차관보가 이번 회담에서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韓·美 신뢰관계 약해져”

오버도퍼 교수, 이명박 前서울시장 면담 “6자회담 낙관적”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돈 오버도퍼 존 스톨킨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8일 “한·미 양국간 신뢰관계가 많이 훼손됐고 신뢰구축을 다시 하려면 정말 어렵다”고 말했다.

오버도퍼 교수는 이날 오전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견지동 개인사무실 ‘안국포럼’에서 이 전 시장과 만나 “조지 부시 대통령이 지난 2000년 당선되면서 미국의 정책은 오른쪽으로 많이 갔고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002년 당선되면서 한국의 정책은 왼쪽으로 많이 가서 갭이 많이 생겼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 전 시장측이 전했다.

그는 다만 “한가지 의외이고 감사한 것은 그래도 더 악화되지는 않았다는 점”이라며 “미국과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신뢰구축에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재개된 6자 회담의 전망과 관련, 오버도퍼 교수는 “어제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과 만났다”고 전한 뒤 “상당한 진전이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낙관론을 밝혔다.

/연합뉴스

美, 첫 중군위안부 청문회

15일 한국인 2명, 네덜란드인 1명 등 생존 위안부 의회 증언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환경소위원회는 오는 15일 오후 하원 레이비닐당에서 2차대전 당시 일본군의 중군위안부 강제동원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7일 공식 발표하고 증인 및 관련자들에게 초청장을 발송했다.

미 의회에서 중군위안부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번 청문회는 최근 하원에 중군위안부 결의안이 제출된 데 따른 것이다.

청문회는 15일 오후 1시30분부터 시작되며 이번 청문회에서 한국인 이용수, 김군자 할머니와 네덜란드인 안 러프 오헤른 할머니 등 생존하고 있는 강제동원 중군위안부 3명과 이번 결의안을 제출한 마이클 혼다 의원, 서욱자 워싱턴중군위안부대책협의회

장, 민디 코틀러 아시아정책포인트 소장 등이 증언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청문회는 미국 정계에 2차대전 당시 일본정부가 중군위안부를 강제로 징집한 실태를 고발하고 이를 이산화함으로써 향후 중군위안부 결의안 처리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전망했다.

한편, 일본측은 미 의회에서의 중군위안부 결의안 통과를 막기 위해 정치적 영향력 이 큰 로비스트를 고용, 하원 외교위 의원 및 민주당 지도부를 상대로 필사적인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고, 오는 5월엔 의원단을 대거 미국에 파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영업인내 2/9(금)~16(금) 오후 8시 30분까지 연장영업합니다.



새해에는 나를 꽃피우리라

이제 새로운 한해로 나를 꽃피우기 위한 준비를 하세요. 현대백화점 상품권을 선물하세요.

Life Stylist 현대백화점 HYUNDAI

받으시는 분의 감각과 라이프스타일을 가장 먼저 생각하신다면 현대백화점 상품권을 추천해드립니다

품격과 감각, 라이프스타일을 전하는 현대백화점 상품권

패딩재 오리지널, 컬러, 손화주머니, 인터넷, 휴대용 및 온오프라인 편리하게 구입하실 수 있으며 현대백화점 한정, 현대백화점, 골프장, 리조트, 특급호텔, 문화, 여행, 워킹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상품권 구매 금액 50%, 미대금 1만원당 인센티브 30% 이상
● 현대백화점 전용 카드 결제 시 인센티브 10% 추가

문의전화 : 10층 상품권 데스크 (062-510-8333~4)

- 인터넷 구입 : www.hyundai.com
- 은행 : 신한은행, 기업은행
- 모바일상품권 : SK텔레콤 (www.moneragift.com), KTF (www.k-marcie.com)에서 현대백화점 상품권



전국 어디든 안전하고 정확하게 다음의 선물을 전하는

현대백화점 배송시스템



· 무료 배송 지역(다음 날 배송)

당일 배송 : 광주·세종·전주(근거리 시외지역 제외) ※평일 오후 3시까지 접수
익일 배송 : 근거리 시외지역(다음 날 오후 3시 이후 접수)
※근거리 시외지역 - 나주, 장성, 담양, 화순, 곡성, 함평

· 유료 배송 지역

- 배송 지역 무료 ※5만원 이상 선금 배송은 무료 - 도서지역 제외
- 배송 비용 4,000원(전국 동일), 제주도 7,000원 및 그 후의 도서(섬) 지역은 별도 운임이 적용됩니다.
- 당일 출고 배송은 2:00(월)~ 2:00(수) 0:00, 기간 중 접수된 상품에 한합니다.
- 배송 제한 상품 : 냉동/생강식품, 파손 가능 상품, 50만원 이상 고가상품, 총량 25kg 이상상품

배송 확인 서비스 : 광주점 : 062) 510-8050, 8054, 8064
선물상단 안내데스크 : 광주점 : 062) 510-7060, 7061, 7062, 7006
기업체 - 단체 - 선물상단 법인영입팀 : 광주점 : 062) 510-7970~5